

# '89년의 國際貿易環境과 韓國의 貿易政策方向



柳 得 煥  
商工部 商易局長

정부는 기반 조성을  
위해 정책을 개발하고 기업은  
그 기초위에서 활동해 나아가는데  
우선 국제환경변화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분업의 논리와 협력의 논리를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터널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이미  
활주로를 떠서 빠른 속도로 날고  
있는 우리 경제를 탄력성있는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금년도 무역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1. 序

對外依存도가 높은 韓國經濟는 國際貿易環境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그러기 때문에 政府가 매년 經濟運用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먼저 世界經濟의 구조를 분석해 보고 또 그 변화의 내용과 속도를 예측하는 동시에 各國이 채택하는 각종 對外經濟政策을 살펴 보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國際貿易環境의 변화 과정에서 韓國經濟의 位相과 당면한 문제들을 발견하고, 앞으로의 發展을 위해 방향을 설정하고 政策을 개발해야 한다.

지금의 國際經濟環境은 한마디로 말해서 各國이 당면한 필요에 따라 協力을 요청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摩擦을 일으키는 순환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世界經濟를 이끄는 先進國을 중심으로 해서 國際貿易環境을 보더라도 美國의 綜合貿易法案 통과에 따른 새로운 保護貿易主義化와 EC 經濟統合에서 보는 바와 같은 經濟 부북化의 발전으로 協력과 摩擦의 요인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이 協력과 摩擦의 요인을 갖고 있는 對外與件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2. 國際貿易環境과 그 變化

### 가. 世界經濟의 低成長勢 持續

美國의 國際収支赤字 累積과 開途國의 外債危機의 지속으로 '89年度 世界經濟는 계속 低成長이 될 것이며 따라서 世界交易伸張勢도 둔화가 예상된다. 한편 金融緊縮政策과 內需擴大의 한계로 예상 經濟성장률은 3.0%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80年代 들어와 계속 미루어져 왔던 國際的인 각종 不均衡과 構造的 문제점들의 해소를 위해 각종 構造調整 노력이 본격화 될 것이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무역정책을 추진하는 모든 주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

#### 나. 對美通商摩擦의 深化

美國의 綜合貿易法 發効는 계속되어 왔던 덤핑 제소의 증가는 물론, 소위 수퍼 301조에 의한 각종 무역보복 조치는 對美 主宗輸出品目인 自動車, 電子製品 등에 대해 위협적인 존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금년 5월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우선협상국가」로의 결정은 對美 輸出을 기본적으로 흔들어 놓는 계기가 되므로서 經濟發展에 치명타가 될 것이 예상된다. 한편 製造業分野는 물론 농산물, 서비스 분야 등에 대한 美國의 對韓開放壓力강화는 國際競爭力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수용할 때 國民經濟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 크다. 더구나 1月 20日 탄생한 부시 行政府 역시 레이건 行政府의 通商政策 근간을 그대로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이상원화 질상의 압력은 계속될 것이며 內需擴大 요구와 우리의 經濟政策에 대한 介入도 증대될 것이다.

더구나 美國의 貿易赤字가 현저히 축소되지 않는 한 對韓 貿易不均衡은 正壓力 역시 增大될 것이 분명하다.

#### 다. 世界貿易의 相互主義 擴大와 부록화 확산

우루과이 라운드 協商에서의 各國間 利害對立으로 협상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쌍무적 통상협상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EC

統合(ESA)을 비롯하여 브라질, 아르헨티나 經濟綜合試圖 등 自由貿易協定締結 증대와 지역주의 팽배로 여타국과의 貿易摩擦 또는 이탈 현상이 빈번히 일어날 것이다.

라. 國際化的 進전에 따라 韓國의 役割分擔 加重  
韓國經濟는 높은 성장과 특히 '86年度부터 貿易黑字로 전환됨에 따라 世界各國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OECD 加入問題가 거론될 정도로 世界經濟에서 對外負擔에 대한 문제가 자주 제기되고 GATT 11條國으로의 준비와 IMF 8條國으로의 이행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결국 通貨價值 切上, 市場開放, 貿易障壁 緩和 등의 進전과 資本自由化, 外換自由化를 통해 世界自由經濟發展에 기여를 강요받게 되는 것이다.

최근에 NICS의 이름으로 OECD측과 經濟協力關係를 협의한 사실은 韓國經濟가 역할분담을 하게 되는 준비단계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최근에 와서 韓國의 經濟位相이 높아지고 특정 産業分野에 있어서 國際競爭力를 통해 世界市場을 침투하고 또 그 支配率이 높아짐에 따라 美國, EC, 日本 등 先進國으로부터 牽制가 고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 마. 北方貿易與件 造成으로 新市場 登場

소련을 비롯한 東歐圈 國家의 開放化 政策과 특히 지리적으로 經濟的 이익을 상호 나눌 수 있는 중국의 급속한 資本主義 經濟制度의 일부 흡수노력은 中東市場 개척이후 잠시 침체되어 있던 新市場 開拓의 노력을 경주해 볼 수 있는 대상을 발견한 셈이다. 물론 政經分離政策을 완전히 宣言하지 못하는 체제의 특성때문에 상호 貿易擴大와 經濟協力の 한계는 있으나 최근 헝가리와외의 外交關係樹立 그리고 소련, 유고 등과의 經濟使節團의 교류는 經濟發展과 貿易擴大에 肯定的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

南北韓 交易問題도 새로운 요인으로서 貿易擴大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은 사실이다. '89. 2. 10 현재 交易으로 신청된 金額이 約 6,000萬弗 정도이지만 南北韓 交易이 작년 7.7 大統領 特別宣言 이후 아직은 초기단계이므로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2.11 각의를 통과한 南北韓 交流協力에 관한 特例法에 따라 관세와 내국세부과가 없이 搬入·搬出을 통해 交易을 확대해 나간다면 새로운 市場으로서 價値있는 대상지역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北韓의 特性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을 기하면서 우리 企業이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 바. 開發途上國과의 協力和 그의 추경

다른 開發途上國들은 韓國과의 經濟關係에 있어서 兩面을 가지고 있다. 相互補完性和 競爭的 요인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 經濟는 圓화절상, 賃金상승 및 原資材 확보문제 등으로 産業을 高度化 해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産業構造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부 競爭力이 없는 産業設備를 海外에 移轉시켜야 되며 이때 다른 開發途上國은 經濟協力の 파트너로서만 새로운 市場으로서 가치가 있으므로 철저한 市場管理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開發途上國은 協力國뿐만 아니라 競爭國으로도 등장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며 일부 産業分野에는 海外市場에서 韓國을 추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國際貿易環境은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가지고 있으므로 긍정적 요인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부정적인 요인은 최소화하여 현명한 대처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3. 韓國의 貿易政策方向

韓國의 貿易政策은 이상에서 설명한 對外與件 이외에 對內與件을 검토하고 조화가 있는 政策展開가 필요하다. 對內與件을 간단히 설명하면 經濟民主化에 따라 經濟政策基調가 급속히 변화되고 있다. 즉 民間의 經濟活動에 대한 政府介入이 축소되고 民間의 自律的 결정과 책임이 상대적으로 增大되고, 競爭機會가 그 어느 때 보다도 공정하게 부여되고 있다. 한편 15.8%의 '88년도 元貨 切上에 이어 금년도에도 상당한 元貨 切上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企業의 採算性이 악화되고 이 악화요인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여 이것은 企業損失로 직접 연결될 展望이다. 國民所得의 增大로 內需市場이 擴大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市場開放에 따른 外國企業의 國內進出로 경쟁이 加速化될 전망이다. 정치적 민주화 진전에 따라 福祉問題, 均衡問題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게 취급되고 따라서 成長間에 資源配分이 經濟에 주는 작용이 크다고 할 수 있다.

政府는 이미 今年度 輸出을 700億弗로 전망하고 輸入을 650億弗로 하여 貿易收支를 國際收支基準으로는 75億弗 黑字를 내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商工部의 基本貿易政策은 貿易收支黑字를 適正化시키면서 擴大貿易立國의 기본조성에 두고 네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다.

첫째, 輸出에 있어서는 量的 伸張에서 質的 成長으로 價格競爭力 위주에서 綜合競爭力제고로 內實化를 통한 輸出을 伸張시키며,

둘째, 輸入의 경우는 輸入開放의 實質的 擴大와 積極的인 輸入促進施策의 추진으로 輸入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아가는 것이다.

셋째, 國際貿易環境變化와 지역별 특성에 따라 事前的이고 能動的으로 對外通商活動을

강화해 나가며,

네째, 國際的 規範과 우리 經濟의 位相에 맞게 우리 貿易體制를 先進化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가. 輸出의 內實化와 輸出能力 補強

政府는 5月까지 輸出産業設備能力과 競爭力을 조사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키로 하였다. 특히 첨단산업과 기술집약적 산업에 집중투자하도록 각종 투자유인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며 中小·地方産業育成을 통해 輸出底邊을 확산해 나아갈 것이다. 특히 有望中小企業을 발굴, 경쟁력을 확충하고 大企業과의 分業的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아갈 것이다.

輸出商品 構造高度化와 品質競爭力을 강화해 나아간다. 原料切上, 賃金 인상에 대비하여 産業構造調整을 촉진하고 世界 一流化 事業을 계속 추진하는 동시에 技術開發과 品質向上 운동을 가속화시켜 상품고급화에 力點을 둘 것이다. 한편 輸出採算性 보완시책을 추구하는 일환으로 工場自動化 政策, 新製品開發, 業種轉換政策을 강력히 펴나가는 동시에 海外投資政策을 적극 추진해 나아갈 것이다. 綜合貿易商社의 輸入機能을 확대하는 등 주요 原資材의 공급 원활화 대책을 강력히 촉진하고 輸出秩序 확립을 통해 輸出聲價를 높이고 간접적으로 通商摩擦을 事前에 방지하는 노력도 경주한다. 한편 民間商社의 해외진출을 多元化하고 특히 綜合貿易商社의 國際去來를 다양화시키는 동시에 연계무역의 효율적 운영과 앞으로 國民經濟發展에 따라 資金調達能力을 위해 국제금융시장 진출도 지금부터 서둘러 나아가도록 할 것이다. 輸出市場의 적극적 진출은 제도적 補完이 필요하므로 투자, 연불수출 등을 위해 현재의 輸出入銀行에서 담당하는 輸出保險 기능을 담당할 輸出保險公社를 새로이 설립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나. 輸入의 擴大

輸入擴大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輸入自由化

의 지속적인 추진과 관세율의 인하가 가장 중요하다. 工產品은 2~3年內에 完全自由化하며 農産物의 경우도 현재의 HS 10단위로 501개 品目中 금년에 적어도 30% 이상 自由化 되어야 한다. 관세율도 '88年 16.9% 수준에서 11.2% 수준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이것은 계속 선진국 수준으로 인하되어야 한다. 輸入擴大는 輸入自由化 이외에 양곡관리법, 사료관리법 등 개별법에 의해 輸入을 제한받고 있으므로 이를 과감히 정비할 계획이며 政府는 이를 위한 대책반을 설치하여 치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輸入保證金制度를 조속히 폐지토록 하는 동시에 對日 貿易逆調 改善 추이에 따라 수입선 다변화 품목도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한편 輸入金融支援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며 이미 特別外貨貸出도 '88年 40億弗에 이어 '89年은 50億弗로 增額 지원해 주고 있다.

輸出入銀行의 輸入金融支援도 작년도의 200億원에서 금년도에는 1,000億원으로 인상하여 支援하고 延支給輸入對象品目的 확대와 연지급 기간도 연장할 것을 검토중에 있다. 이상과 같이 輸入과 관련된 제도적 보완은 물론 제도에 추가하여 프로모션적 활동이 필요한데 이것은 곧 輸入擴大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다. 力點을 두어야 할 부문은 企業內에 輸入專担부서를 설치하고 구매사절단 파견 등 직접적 輸入活動이 요구된다. 한편 赤字時代에 輸入에 대한 좋지 않았던 인식을 黑字時代에 와서는 전환되어야 하며 輸入商品의 內需擴大를 위해 流通産業의 육성도 중요한 事業中의 하나이다.

#### 다. 地域別 貿易均衡化 및 新市場 開拓

通商問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 하고 극복해야 될 사항은 對美黑字를 축소하고 對日赤字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일이다.

對美黑字는 '88년에 86億弗에서 금년에는 65億弗로 축소하고 對日赤字는 39億弗에서 34億弗 수준으로 개선하여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美國에 대하여는 輸入先轉換시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동시에 日本에 대하여는

무역역조개선 5개년 계획 중 3차년도 사업계획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輸出增大, 日本流通市場에 참여,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韓日間 産業協力事業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한편 EC와도 協力事業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EC 統合에 대비하여 투자, 기술협력을 비롯하여 輸出入의 확대균형 차원에서 對EC 輸入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對EC 輸出을 위하여는 輸入도 해주는 Give and Take의 기초적 상식을 크게 활용하여야 한다.

특히 금년에는 開途國 진출을 위해 對外經濟協力基金을 대폭 늘려야 하며 북방경제교류추진을 위해 단계별 基本接近方式을 채택, 經濟의 相互利益을 추구하고 이것이 드디어는 政治的 목표달성까지 유도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對外접촉과 정책추진에 신중을 기해 交易를 추진해야 하는데 접근방식은 間接交易, 直接交易 그 다음에 合作投資를 포함한 協力事業의 順으로 발전하는 것이 이상적인 단계이지만 환경변화에 따라 모든 것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는 필요하므로 최근에 구성된 北方, 南北韓關係交流委員會의 설치와 法律的 뒷받침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先進貿易體制의 構築이다. 현재 商工部는 2000年代 韓國貿易의 전망과 長期政策方向의 設定을 위해 이미 작업에 착수한바 있다. 輸出入제도도 GATT 체제에 맞게 과감하게 개선을 추진중에 있다. 貿易管理를 전부 電算化시키는 작업도 병행시키고 있다. 이것은 우리 經濟가 開放化 되면서 불가피하게 치루어야 할 政策의 하나이며 또 國際競爭社會에서 끝까지 승리자로서 존재하기 위한 基本手段이기도 하다. 또한 市場이 開放되고 國內産業에 피해가 예상되므로 政府는 이미 産業被害救制制度를 신설한바 있으며 그 기능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貿易委員會의 기능과 또 조사와 구제의 기능 및 기구 등이 대폭 강화,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國際貿易秩序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는 世界

各國이 제기하고 있는 새로운 協力構想에 대한 政府의 입장을 조속히 정립하고, 自由貿易協定, EC 統合, 環太平洋經濟協力 등 각종 Bloc화 추세에 대비하여 능률적이고 사전적인 政策展開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 4. 結言

國際貿易環境變化에 대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前述한바 相互摩擦을 피하고 협력의 차원에서 우리의 이익을 極大化시키는 일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몇가지 대표적인 貿易政策이 그 실효를 얻고 더 나아가서 우리 經濟發展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政府와 企業 그리고 또 貿易政策을 추진하는 모든 주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

특히 民間企業과 政府는 協力과 分業關係를 통해 가장 적합한 政策手段을 선택하여 경제효율을 높여 나아가야 한다. 특히 經濟自律化時代로 발전해 가는 현실하에서는 民間企業의 역할은 그 어느 때 보다도 크며 중요하고 또 이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政府의 책임도 막중하다.

政府는 기반 조성을 위해 정책을 개발하고 企業은 그 기초위에서 활동해 나아가는데 우선 國際環境變化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分業의 論理와 協力の 論理를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터널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愚를 범하지 말고 이미 활주로를 떠서 빠른 속도로 날고 있는 우리 經濟를 탄력성있는 政策手段을 동원하여 금년도 貿易政策이 올바르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新刊 案内

1989年度 世界 電子市場의 現況과 展望

• 韓國電子工業振興會 刊